

한중일 부품소재산업의 경쟁력



한국과 중국, 일본의 부품소재산업의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산업연구원의 한중일 부품소재산업의 경쟁력 분석 보고서를 인용한다. 우리나라는 주력 수출상품에 투입되는 핵심 부품소재의 원천기술이 일본보다 열위에 있어 부품소재의 대일 의존도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에는 중국 부품소재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어 점차 우리에게 위협적인 상황으로 진행된다.

2000년부터 2007년 기간 한중일 3국의 부품소재 세계시장 점유율은 일본이 다소 감소하고 한국은 완만한 증가세에 그치고 있으나 중국은 급속한 증가세를 시험한다.

우리나라의 부품소재 제품에 대한 중국의 위협 정도를 분석한 결과, 중국 수출의 절반 이상이 한국에 위협적인 것으로 나타나 일본의 위협을 넘어서고 있다. 과거 중국은 부품소재를 우리나라로부터 수입하여 완제품을 수출하는 형태를 보여왔으나, 분석결과 중국과의 경쟁력 역전현상이 대일 의존관계 심화에 더하여 중요한 현안으로 대두되었다.

우리나라 부품소재산업은 향후 일본, 중국 제품과의 차별화를 도모하고 고부가가치화를 촉진하기 위

해 핵심 부품소재 개발과 제품의 고급화 등에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우리 경제는 반도체, 휴대폰 등 수출효자 품목의 핵심부품을 대부분 일본으로부터 수입하기 때문에, 완제품 수출이 증가할수록 대일무역적자가 늘어나는 대일 의존형 산업구조를 보이고 있다. 부품소재의 대일 의존을 극복해야 하는 상황에서 한국의 부품소재산업은 최근 중국의 세계시장 점유율이 급속히 상승함에 따라 세계시장에서 입지가 크게 약화되고 있다.

2000~2007년 기간중 중국이 가장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한국도 완만한 증가세를 보인 반면 일본은 오히려 감소하였다. 중국의 세계 부품소재시장 점유율은 2000년 3.5%에서 2007년 10.2%로, 한국은 3.8%에서 4.2%로, 일본은 11.7%에서 8.0%로 하락하였다.

2007년 기준 세계시장점유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분야는 한국의 경우, 전자부품과 컴퓨터부품, 중국은 컴퓨터부품, 섬유소재, 전자부품, 일본은 전자부품과 비금속광물, 정밀기기부품 등이다.

지난 8년 사이 한국의 전자부품 세계시장 점유

율은 전자부품이 6.5%에서 9.6%로, 컴퓨터부품이 6.8%에서 7.4%로 상승한 반면, 섬유소재는 8.2%에서 3.9%로 하락하였다. 일본은 모두 하락하였다. 중국은 모두 상승하였고 컴퓨터부품이 6.2%에서 27.4%로 전자부품이 3.3%에서 16.2%로 급증하였다. 다만, 일본, 한국의 컴퓨터 및 전자부품업체들이 생산기지를 중국으로 이전한 데 따른 것이다.

부품소재산업에서 일본과 중국이 한국에 얼마나 위협적인지를 살펴보기 위해 각국의 세계시장점유율 변화를 비교한다. 2000~2007년 기간 한일간 경쟁 관계는 한국의 세계시장 점유율이 증가하고 있으나 한국제품에 대한 일본의 위협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수출금액 기준 일본 제품의 11.4%가 한국에 대해 직접적 위협, 40.3%가 부분적 위협으로 일본 수출의 51.7%가 한국에 위협적이다. 위협이 없는 제품은 26.8%, 한국이 오히려 일본에 위협적인 경우는 10.5%이다.

산업별로는 화학소재, 고무플라스틱제품, 비금속 광물, 일반기계부품, 전자부품, 정밀기기부품 등은 우리나라보다 일본의 세계시장 점유율이 더 빠르게 증가하여 일본이 한국에 대해 부분적 위협 상대국임을 보여준다. 반면, 조립금속제품은 한국이 일본을 위협하고 있다.

이처럼 일본이 높은 세계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어 원천기술 부족에 따른 대일의존도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된다. 2008년 대일 부품소재 무역적자는 209억달러로 전체 대일 무역적자의 64%를 차지한다.

한중간에는 수출금액 기준으로 중국제품의 17.9%가 한국에 대해 직접적 위협, 45.3%가 부분적 위협으로, 전체적으로 중국 수출의 63.2%가 한국에 위협

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이 중국에 위협적인 경우는 15.3%이다.

컴퓨터부품의 경우 한국의 시장점유율 상승이 국내 컴퓨터업체의 중국 이전에 따른 부품수출 확대와 LCD 모니터의 수출 증가에 기인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며, 일반 컴퓨터부품은 이미 중국의 위협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다. 전자부품은 부분적 위협 품목이 수출금액 기준으로 80.2%나 차지해 향후 중국의 위협이 가시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우리나라의 대일 부품소재 수출에서 전자부품은 1995년에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으나 2000년대에 들어와 일본 전자업체들이 중국 등 해외로 생산설비를 이전하면서 그 비중이 크게 하락하였다.

한국의 일본부품소재시장 점유율은 2000년 8.5%에서 2005년 8.9%, 2008년 8.6%로 정체된 반면, 중국의 일본시장 점유율은 2000년 11.7%에서 2005년 23.7%, 2008년 25.6%로 계속 상승하였다.

일본기업들이 중국 투자를 확대하여 역수입이 크게 증가한데다 중국 부품소재의 급성장으로 중저가 제품의 대일 수출이 크게 늘어난 것이다. 무역특화 지수를 통해 대일경쟁력은 2008년 우리나라는 부품소재 모든 분야에서 일본에 대해 경쟁력이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



【 한중일 부품소재산업별 세계시장점유율 변화 】

(단위 : %)

	한국			중국			일본		
	2000년	2004년	2007년	2000년	2004년	2007년	2000년	2004년	2007년
컴퓨터부품	6.8	7.3	7.4	6.2	19.6	27.4	10.9	7.8	2.1
전기기계부품	1.5	2.0	2.6	5.7	9.2	13.2	12.8	9.8	7.6
전자부품	6.5	7.3	9.6	3.3	9.7	16.2	15.6	13.5	11.5
부품소재합계	3.8	4.0	4.2	3.5	7.2	10.2	11.7	9.7	8.0

우리나라 부품소재산업은 경쟁력이 일본에 뒤처진 상황에서 중국과도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어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

일본의 경우 세계시장 점유율이 하락하고 있지만 중국으로 설비이전이 부분적인 요인인데다 지속적인 기술혁신으로 여전히 한국, 중국보다 높은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 중국은 전자부품, 컴퓨터부품, 일반 기계부품 등 부품분야의 경쟁력을 급속히 강화하면서 한국 입장에서는 일본보다는 오히려 중국과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중국 부품소재산업의 성장은 한국, 일본, 선진국들이 중국으로 생산기지를 이전하고, 중국의 외국인 투자 유치 노력이 완제품에서 점차 부품소재 쪽으로

이전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중국은 기존의 단순 제조단계를 넘어 핵심 부품소재에서 기술경쟁력을 기반으로 한 고부가가치 분야 중심의 산업구조를 정착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일본, 중국 제품과의 차별화를 모색하고 고부가가치화를 촉진하기 위해 핵심 부품소재 개발과 제품의 고급화에 노력해야 한다. 취약한 설계기술과 핵심부품의 원천기술 확보, 차세대 신기술 개발 등으로 고부가가치 신제품의 발굴, 육성이 필요한 것이다.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서 기업 규모의 영세성에서 파생되는 대규모 R&D 투자여력 부족을 먼저 극복해야 하는 것이다.

